

안전교육



민철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교육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때와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을 피력한 바가 있다. 실로 이 교육은 이르면 이를 수록 좋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의 성장기에서 다섯·여섯살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이때 이미 일생을 좌우할 성격의 골격이 형성되고 굳어지기 시작한다고 한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분별력·판단력도 이 시기를 전후해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시킨다면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사고에서 자기 몸을 지킬 줄 아는 안전의식이나 판단력을 키울 수 있고, 이는 그의 일생에서 사고로부터의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한다.

년전에 안전과목을 국민학교의 정규 교과 과목에 넣겠다는 보도가 분분하더니 요사이는 거론조차 되지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우

리나라가 한해동안에 산업재해 때문에 입은 손실액이 물경 3조 5천억원이라고 한다. 한사람이 이세상에 태어나서 먹지 않고 자지않고 숫자만 세다 간다고 하더라도 다 못 세고 갈 분량이다. 산업사회에서 앓차! 하는 실수로 인해서 진, 일년동안 갚아야 할 빚더미인 것이다.

한해에 죽어라하고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려 노력해도 무역적자가 누적된다고 고충을 털어놓으면서도 안전교육의 미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년의 40억불에 달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외면하려고 하며 무감각하려는 것이 현실이다.

한 나라의 국력은 국민들의 생산력이 밑바침되어야 하는데 이 생산력이 산업재해로 인해서 자꾸 약화된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최대의 적인 사고를 철저히 분쇄하고 타도해야만 한다.

사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 공해가 가장 심한 나라. 이런 오명을 쓰

고 어떻게 중진국 대열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기할 수 있겠는가? 이상의 세가지를 제쳐놓고 상위진출을 노린다면 이는 실로 도심(盜心)의 발로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속에는 인명을 존중하는 윤리와 도덕이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경제대국으로의 발전 운운하면서 어느새 전체 숲을 보는 것을 잊은 채 당장 앞에 버티고 서 있는 하나의 나무그루를 보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같다.

경제성장을 이유로 해서 사고율이 줄올라도 가하다는 논지가 있다면 이는 절대 어부성설(語不成說)임을 강조해 두고 싶다. 참다운 경제 발전이란 전체 국민의 생활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을진데, 사고건수를 자연히 감소시킬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시급하다.

사회가 날로 기계화되어 가고 있는 이 때에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교육의 조기 실시는 매우 타당하고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이론으로 깨우칠 그런 학문이 아니고, 장구한 시간과 더불어 실기를 몸에 익히게끔 하여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백년대계의 큰 뜻이 필요하고 꾸준하고 즐기찬 인내심이 요구된다.

안전교육은 여타 교육과 달라서 계획이나 입안이 충실하면 쉽사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과목이다. 왜냐하면 이는 직

접 자신의 신체 상의 안위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누구나 관심이 많고 기대가 큰 과목이기 때문이다.

각종 산업사회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불충분한 것을 많이 보아 온다. 안전관리를 하려면 우선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업주가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주가 종업원을 아끼는 사랑의 정신부터 싹터야 하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종업원이 뜻하지 않은 사고때문에 다치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 의식부터 앞서야 하는 것이다. 기업주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고 우선 눈에 보이는 불합리부터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항상 위험을 멀리하고 위험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빠뜨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값싼 영웅주의나 희생정신이 결국은 더욱 큰 화를 자초한다는 간단한 철학도 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목이다. 이는 자기 한몸을 희생하면서 당장 일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사고를 당해서 주위에 누를 끼친다면 더 큰 손해를 자초한다는 뜻이다. 금년부터는 아무쪼록 사고 최다발국이라는 오명을 떨쳐 버릴 수 있게 온 국민이 다 함께 분발해야 할 것이다. ㉞

〈안전전문가〉